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황 현산 문학평론가

근대 서정시의 결작 가운데는 그 짧은 형식 안에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시들이 많다. 물론 그 이야기는 압축되고 생략되어 있으며,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힘이 그만큼 커지기도 한다.

가까운 데서 예를 들자면, 이효익이 식민지 시대에 썼던 시 '강가'는 여덟 줄의 시 속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둔 한 늙은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지막 네 줄로 그 이야기의 깊이를 만다.

“그 늙은인/ 압소 따라 조발 저쪽으로 사라지고/ 어느 길손이 밥 지은 자한지/ 고슬린 돌 두어 개 시름겹다.” 노인이 떠난 강가에는 돌을 세워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숯단지를 걸어 밥을 지었던 흔적이 있다. 어느 나그네가 지나갔던 자취다. 이 길손의 취사는 기능으로만 본다면 오

늘날의 등산객이 버너와 코펠로 밥을 짓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 강가의 '고슬린 돌 두어 개'가 그 시절 한 가정의 부역을 간소한 형식으로 다시 조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역은 가정의 중심으로 조왕신이 깃든 곳이다. 나그네는 혼자 몸으로 집을 이루고, 살 길을 찾아 그 집을 끌고 간다. 아마 노인도 감옥이 있다는 청진까지 아들을 찾아 그렇게 밥을 지으며 갈 것이고, 청진에서 아들과 함께 그렇게 집을 짓고 허물며 돌아올 것이다. '강가'라는 제목은 무심하다. '시름겹다'는 말로 끝을 맺었지만, 어찌 이 시름을 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듯이 무심하다. 한 시대에 이 민족이 유랑하며 겪었던 고뇌가 이 무심함 속에 들어 있다.

그러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다.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에는 '살인자의 숲'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담은 끔찍한 시가 들어 있다.

어느 숲꾼이 잔소리하는 아내를 우물 속에 밀어 넣어 살해한 뒤 또다시 숲집에 앉아, 아내에게서 풀려난 해방감과 아내를 죽인 자의 절망감을 동시에 읊고 있는 시이다. 그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변명은 좀

평범하게 들린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늘 범죄와 자살의 유혹, 극심한 불안, 억압과 해방에 대한 갈증이 따라다닌다는 뜻의 말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극적인 서사(敍事)로 꾸민다. 벌써 150년이 지난 프랑스의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신문에서 아내나 애인을 죽인 남자들의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보들레르의 살인자와 한국의 살인자들은 물론 다르다. 저쪽 나라 살인자는 여자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 살인을 했지만, 지금 이 땅의 살인자들은 거의 자신에게서 떠났거나 떠나가려는 여자들을 살해한다. 억압과 해방의 주체가 역전되어 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 살해된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입이 없었지만 남자 살인자들은 사랑의 서사이든 증오의 서사이든 자신의 서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사는 어느 나라 어느 남자를 막론하고 똑같다.

남자에게 여자는 그가 가장 가까이에 서 만나는 사회의 얼굴이다. 아렸을 때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어머니가 대신해서 전달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아내가 대신해서 요구한다. 남자를 붙잡고 잔소리하는 여자나 거꾸

로 남자에게서 해방되려는 여자나 본질적으로 그 요구 사항은 같다. 남자는 저 '명령하는 사회'를 자기 힘으로 파괴할 수 없지만, 여자는 만만해서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살해된 여자에게 자기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입이 있다면 그 서사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회의 요구를 전하기 전에 사회는 먼저 여자에게 명령한다. 가부장 사회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부터 다른 일까지 삶의 실체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는 사회의 막중한 명령을 자신의 어깨로 느낀다. 게다가 명령을 전달하는 여자는 남자를 달래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어떤 마술로 저 명령을 말랑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여자에게 그런 마술은 없다. 여자는 살해당함으로써 마지막 마술을 배운다.

이 글을 읽는 남자들은 자기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기 바란다. 가부장 사회에서 착한 남자건 나쁜 남자건 남자의 서사는 같다. 남자의 서사는 못한 살인자의 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웅의 서사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희생자의 서사다. 역사의 발전은 늘 희생자의 서사로부터 시작한다.

社說

지역민 기대 부응 못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노무현 정부 시절 광주를 아시아 문화수도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시작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세 차례나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추진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개편안을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이 문체부 정식 직제로 편성되지 않고, 현재처럼 별도 정원 조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돼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광주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수년 동안 추진단을 정부의 정식 직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추진단의 위상 강화와 업무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단장의 직급 상향 및 정원 확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실시한 문체부 조직 개편안에 의하면 현행 7실 체제가 4실·5국 체제로 개편되는데, 추진단은 기존 문화콘텐츠산업실에서 신설된 지역문화정책관실로 옮겨질 뿐 본부 직제 편입은 이

뤄지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됐던 추진단장의 직급이 그대로인데다 현재 11명으로 부족한 정원도 늘지 않자,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당시 문재인 후보는 광주·전남 공약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및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등을 내세우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약속해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껏 높여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문화전당 활성화만 들어갔을 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말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다. 문화전당만 운영해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는 손을 떼려는 계산이 아니라면, 추진단을 국가사업의 위상에 걸맞게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유치원 찜통버스 사고 1년...뭘가 달라졌나

지난해 7월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A군(사고 당시 만 3세)이 1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의식이 없는 아이가 발차하거나 튜브로 공급한 음식을 자꾸 토할 때면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 제 가슴도 미어져요." A군 어머니의 피맛엔 절규다.

지난 3월 상태가 악화돼 한 차례 중환자실로 옮겨졌던 A군은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5일부터 어린 이병동으로 옮겨졌다. A군 어머니는 코에 콧을 튜브를 빼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찜통버스 속 네 살배기 아이가 8시간 만에 깨어 있다는 소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 1년 동안 뭘가 달라졌으며 현장의 안전 관리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불행 히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A군은

의식불명에 빠뜨린 광주 S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폐쇄 명령과 징계를 거부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유치원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소송을 제기해 오는 8월 10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고 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교육청도 안전 대책을 추진했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지난 2월 7일에는 광주 모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잠든 B(7)양이 코에 콧을 튜브를 빼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과 전수조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종사자들이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칼럼



원 목 선덕사 주지

요즘 대다수 절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한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이다. 화장실의 옛 이름에는 뒷간, 정낭, 직간(죽간), 구세, 통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주로 사용된 변소라는 이름도 있다.

그런데 과거에 절에서 사용한 화장실 이름으로 북수간(北水間)이 있다. 앞산을 남산이라고 하듯이, 방위상으로 북은 뒤를 가리키므로 북수간은 뒷물 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휴지 없이 물로 씻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을 만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문화에 어울리는 말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 교섭지 지역의 일이다. 어느 날 한 강사 스님이 불 일을 보고

사회적 대타협 바람이 불어라

뒷물을 한 뒤 뒷물 바가지 비우는 것을 깜빡 잊고 화장실에 나왔다. 줌 있다 울사 스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비워지지 않은 바가지를 보고 그 스님에게 물었다. "벗이여, 그대가 물을 비우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까?" "아차,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벗이여, 그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참회합니다." "벗이여, 이것은 규칙 위반이지만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해서 일어난 것이니 죄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강사 스님은 울사 스님의 말에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울사 스님은 다른 자리에서 강사 스님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강사 스님의 제자들 앞에서 강사 스님을 비난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강사 스님은 '그 스님이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한다.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울사 스님은 강사 스님이 규칙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선언했다. 그리하여 울사 스님을 따르는 측과 강사 스님을 따르는 측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일어났다. 그 소식을 들은 석가모니 붓다는 장로

스님들을 통해 화합을 이루도록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붓다가 직접 가서 화합의 가치를 일깨우려 화해를 권했지만 그들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스승님은 관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돌아왔다. '수행자들이여, 다음을 그치시오. 다툼이나 불화나 싸움은 대중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관용과 인내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지만 대중들은 화해하지 않았다. 붓다는 다투는 대중을 떠나 숲 속에 3개월간 머물렀다.

교섭지 지역의 신도들은 스님들의 갈등으로 붓다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투는 수행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붓다를 만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한 신도들은 분열을 일으킨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거부했다. 며칠에 걸쳐 탁발을 할 수 없게 된 수행자들은 그제야 서로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다. 그러나 신도들은 붓다에게 용서를 받기 전에는 예전처럼 존경과 공양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먼 길을 찾아와 잡화하는 수행자들에게 붓다는 원한

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으며, 상대를 인정하고 관용하며 절제함을 통해 극복한다고 가르쳤다.

따져보면 이쪽도 저쪽도 그렇게 주장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이기려 들면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

모두가 귀한 존재로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삼아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관용의 자세로 대할 때 비록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절충점이 만들어진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자본가와 노동자, 노인과 청년, 영남과 호남, 도시와 시골은 서로 존중해야 할 이유이지 대립해야 할 까닭이 아니다. 경제 성장이 저체고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시절, 대립해야 할 이유를 확인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더하는 사회적 타협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무더위가 한창이다. 온도는 똑같지만 더위는 약지가 더 뜨겁다. 약지의 무더위를 식혀줄 사회적 대타협의 부재질 혹은 미래세대 해우소를 만나고 싶다.

기고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

블루오션 '치유농업' 일자리 창출 모델로 만들자

이 민간에서 시작되어 국가 차원으로 발전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1100개의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 및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관광과 체험 단계에서 벗어나 건강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왜 치유농업인가? 이는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1990년 우리나라 국민 평균연령은 29.5세이던 것이 2017년 41.2세로 무려 11.7세가 늘어났고, 평균수명은 1990년 71세에서 2015년 81세로 무려 10세가 늘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는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농촌체험과 경관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치유농업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치유기능의 다양성과 새로운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농업을 추진해야 할까? 이제 단순한 농사·농촌체험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치유를 위한 아이টে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농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우리 환경에 맞는 일자리 창출 치유농장 모델을 만들어 치유농업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

치유농업이 단순히 건강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활, 교육, 고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치유농업 시설 기반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합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인이나 문제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일터를 직접 제공하는 치유농장은 사업자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는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치료 중심의 전문성 있는 영역으로 사업확대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예방형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적·인적 기반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기존의 농촌교육 농장이나 농가 맛집과 같은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장을 적극 활용하여 치유식단, 원예·곤충·동물 매개 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

야 한다.

아울러 치유농업을 선도할 전문경영인도 양성해야 한다. 치유농업의 목적이 '돈 되는 농업'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은 물론이고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 주체인 경영자의 사업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각종 식품의 기능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개별 건강정보에 맞는 맞춤형 식품 제공, 농촌에서 유통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도농상생 마을 만들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생태 마을 조성 등 치유농업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가 소득제고 외에도 토지가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다. 특히 전남은 치유농업에 유리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환경에 맞게 특성화된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고,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 확대를 위한 서비스와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無等鼓

을사늑약 후 초대 조선 통감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는 장물아비였다. 창경궁에 박물관을 세우고 문화재를 수집했다. 그는 특히 고려청자를 좋아해 수천 점을 모아 일왕에 바치거나 일본 귀족들에게 선물했다. 어느 날 이토가 도굴꾼들로부터 사들인 청자를 고종 황제에 보여 주었다. 고종이 "이 푸른 그릇들은 어디서 만든 것이요?"라고 묻자 이토는 "이 나라 고려 시대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고종이 말했다.

"이상한 일이요. 이런 물건은 이 나라에는 없소."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선조 묘의 훼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수만 점의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넘어갔다. 특히 도자기 피해가 심했는데, 일본인들이 조선에 오면 한 손엔 고려 인삼, 다른 손엔 고려청자를 들고 돌아갔다. 유출된 청자는 대부분 도굴품, 개성·강화·해주 등 고려 왕릉이나 귀족들의 무덤은 도굴꾼들에게 노다지 광산이었다.

1935년 일본인 도굴꾼 야마모토가 고려 말 무신정권 집권자 최우의 무덤에서 찾은 것이 고려청자 최고의 걸작인 청자삼강문화문매병(국보 제 68호)

이다. 69마리의 학을 상감으로 새겨 둘러 가며 감상하면 마치 천 마리의 학이 하늘로 비상하는 것 같다 해서 '천학매병'(千鶴梅瓶)이라 이름 붙여진 명품이다. 일본인 소장가가 탐냈지만 간송 전형필이 당시 서울의 기와집 20채 값인 2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간송은 오리 모양 연적, 원숭이 연적, 원왕문 정병, 기린 향로 등 많은 청자를 지켜 냈다.

칠보투각향로, 비룡형주자, 소문과형 병 등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 대부분은 강진 사당리 가마에서 빛어졌다. 강진은 태토(胎土: 비탕흙·질흙)나 수질·기후가 청자 생산에 적합한 가마 180여 개가 운영될 정도였다. 내일부터 '고려청자의 고향' 강진에서 청자 축제가 열린다. 천학매병의 두 배 크기인 80cm의 매병을 경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물레 체험, 청자 왕인 구매, 매병 전시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고려청자는 천 년 전 강진의 이름 없는 도공들이 혼과 열정을 기울여 빚은 것이다.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을 알고 가까이서 향유하고 즐기는 데 있다. /유재권기자 편집부 부국장 jkyou@

강진 청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